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 편집인 조 영 식
주 간 이 석 우
편 집 장 이 준 희
인 쇄 인 허 수 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 FAX(963)5849
수원캠퍼스(우:449-79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 745-5702 (교환:2056, 2137)
직통(0331)280-2056, 2860

제969호 〈주간〉 1991년 1월 1일 (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32 (1955년 5월12일 창간) 【1】

교수협, 조영식 총장 재추대

지난 11월 28일 정기총회서 전체 투표로 의결

총학, 학생·직원 참여 요구하며 거센 반발

제8대 본교 총장에 조영식 현 총장이 재추대됐다.

총장임기만료를 앞두고 학내 제단체간의 논란속에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월28일 전체총회를 갖고 3시간동안의 논의끝에 재추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총장 선출문제를 재단에 일임할 것인가,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할것인가를 표결에 부쳐 '교수협의회 선출안'이 통과되었으며 2차투표로 구체적 선출방식에 대한 표결끝에 재추대안이 확정, 3차로 현 총장 신임·불신임 투표결과 2백2표 대 25표로 재추대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29일 교수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대해 '재추대의 형식이 투표라는 형식만으로 이루어진다해서 민주적인 선출방법이 될수는 없는일'이라고 밝히고 '학생과 직원의 참여가 완전히 무시된 이번 교수협의회의 총장 선출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2월 3일에는 학생 50여명이 총장실과 교수협의회를 방문,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사진〉

이어 12월 20일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현재의 총장선출문제는 학생과 직원이 총장선출에 대한 의견을 학교와 재단에 전달할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다음 총장선출에 있어서는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고 민주적인 선출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야 할것과 총장선출의 여파가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학원의 자주화와 대학의 발전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총장선출문제에 대한 학생측 입장'을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에대해 조영식총장은 답변서를 통해 '총장선출문제와 더불어 대학의 발전과 행정참여를 위해 교수·학생·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의사수렴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월 28일 이후 총장선출에 대한 별다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3일 학생 50여명이 교수협의회의 총장선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다.

교수협 회장에 원응순 교수 부회장등 신임 임원진도 선출

제3대 교수협의회 회장에 원응순(외대·영문)교수가 선출됐다.

〈관련 인터뷰 7면〉

지난 11월28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천된 원응순교수는 총5백55명의 회원중 2백95명이 참가한 가운데 2백66표를 획득 당선됐다.

안서규 당선된 차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김진영(문리대·국문학)교수, 차영일(자연과학대·환경)교수

조영식 총장 '최고훈장' 받아 소련청년연합회로부터

조영식 총장은 지난 11월 29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서울에 온 보이체프스카 박사로부터 국제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련청년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최고훈장을 받았다.

'아끼다' 대학과 교류협정 교수·학생교류 계획

본교와 일본 아끼다대학이 지난 12월11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교수·학생 교환교류 및 학술·스포츠부문의 교류가 촉진될 전망이다.

신갈 전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와 간담회등 협의 갖기로

수원캠퍼스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신갈전철노선유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7일 있은 전철유치를 위한 간담회에서 학교측은 우제린부총장을 중심으로 각 단대 학장으로 구성되는 신갈전철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신갈주변 주민들이 참석하는 '신갈전철 유치팀' 구성을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이달중에 신갈 인근지역 9개대학 총장,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입관부지위원회 전철유치소위는 현재 강남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등 9개대학이 참가하는 전철유치 연합체의 조직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해설】 신갈전철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분당선 전철 노선이 신설되면서 제기되어진 것으로서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2차례의 간담회를 가진바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갈전철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학생과 학교, 주민이 모두 참가하는 연합체구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1월중에 조직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직구성이 완료될 경우 신갈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 부처에 신갈전철 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양 캠퍼스 동계 농활 실시

서울 15일, 수원 20일경부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겨울농촌활동을 15일부터 18일까지 순창군에서 실시한다.

농민·학생연대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농활에서는 농한기라는 시기를 감안하여 문화선전대의 공연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벼추곡수매안이 '민자당의 날치기통과'로 이루어진데 대한 농민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공과대학 학생회 주관하에 오는 20일경 평택군 일대에서 겨울농촌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농활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와 연계해 실시되며, 총학생회 문화선전대도 참가활동한다.

도서관 이용시간 변경

동계방학중 도서대출 및 개가열람실 이용시간이 변경된다.

중앙도서관 도서대출업무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12시까지만 하며 개가열람실은 평일 오후 4시30분까지, 토요일 오후 12시30분까지 개관한다.

또한 수원캠퍼스 자료열람실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개방하며 일반열람실은 공대열람실중 한개의 열람실만이 학기중과 같이 운영된다.

후기대 입시 오는 22일 원서접수 3일부터 7일까지

91학년도 후기대입시가 12월29일 원서및 모집요강교부를 시작으로 91년 1월22일 실시된다.

후개대입시 원서접수는 오는3일부터 7일 오후5시까지이며 면접(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은 1월23일, 합격자발표는 2월1일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8일에 실시된 전기대입시에서는 서울캠퍼스 42대1, 수원캠퍼스 8.7대1, 전체 6.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산업디자인학과가 20.5대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입생 등록금 18% 인상

총학, 학교예산 검토후 학생측 입장 밝힐듯

수원캠퍼스 91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이 18%인상, 책정됐다.

이는 기획관리실이 각부처의 예산요구서에 의거해 작성한 초안으로 이번 등록금인상의 요인은 물가인상, 교육여건 개선비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예산 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번 인상안은 지난 11월21일 경인지역 사립대학기획실장협의회의 15~20% 인상폭 합의가 반영된것"이라며 "작년 등록금 협상때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한 인상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90년 11월부터 91년 3월까지 추경예산, 91학년도 예산편성 가안등을 검토하고 학생측 인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한 수원캠퍼스 예결위는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 활동의 원칙'을 △물가인상분 및 납입금 상승부분은 국가, 재단, 학생 3자가 공동부담함으로써 납입금비율을 줄이고 △학비감면, 장학금확충, 교육재정확보에 중점을 두며 △학교측의 예산안을 공개·분석해 합리적인 학생들의 요구안을 마련, 학교예산안에 반영한다는데 중점을 둔다고 정했다.

한편 매년 본교는 등록금인상을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 같이 적용한 관례로 보아 18%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할것이 예상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학과 동문회 장학재단 설립

기금 1억1천만원 마련, 법인등록 추진

경제학과동문회(회장 이동진·경제1회)는 장학기금을 마련, '경제학과 동문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경제학과 동문회는 지난 12월 5일 롯데월드에서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동문총회를 갖고 기존의 장학기금 5천만원에 6천만원을 추가모금해 총 1억1천만원으로 공식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법인등록등 공식 절차를 밟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경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학과단위의 장학재단 설립은 이번이 처음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모금된 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과 회장단 2천만원 △이석륜동문 1천만원 △유양상동문 1천만원 △당일모금액 2천만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2월21일 잠실역도경기장에서 학교측과 같이 신입생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각 단과대학별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1부 학교생활안내와 2부 V.O.U.와 경희 TV의 방송제, 집체국등의 순서로 열리며, 각단대별 행사장소는 다음과 같다.

▲외대·산대:포천 산정호수 ▲사회대·공대:설악산 유스호스텔 ▲자연대.충남 홍성 ▲체과대:수원캠퍼스 애지원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2월18일부터 24일까지 기간중 학교와 공동으로 3박4일간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

서울 총학 2학기 결산 발표

일상·주요사업 경비등 총 4천여만원

서울캠퍼스 22대 총학생회는 2학기 경비 지출내역을 발표했다.

각부서별 일상사업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경비지출로 총 4천70여만원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8월: 3백21만6천3백90원
△9월: 7백48만9천원
△10월: 3백76만5천8백80원
△떡잔치: 2백4십9만9천원
△2학기 진군식: 1백8십7만5천원
△한가위 귀향단사업: 9백3십6만5천원
△추계농활:6 백5십2만1백78원
△가을대동제:6백8만1천5백원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新年 달력'

校是塔

▼ 새해다. 모두들 벽에 하나쯤은 걸어두었을 각계각층에서 발행한 새해 달력을 보며 지난 한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단계에 서있다.

▼올해에도 학교의 모습이 담긴 새해 달력이 2만5천부 제작·발행됐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 학교 달력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듯하다. 이미 발행된 올해 달력은 전국 각 고등학교, 동문, 교사, 학내직원에게 모두 전해졌다. 결국 재학생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는 것이다. 새해에 받는 달력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신선함을 준다. 특히 재학생이 그학교의 달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는것도 의미있는 일일것이다. 그 달력에는 재학생의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긍심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학생에게 달력을 받을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에 대해 재인식하게 됨으로써 학교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타대학의 경우는 학교 달력을 교내 문구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새해마다 달력을 받았을 때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1년내내 벽에 걸어 두고 볼 달력에 담겨있는 사진이나 그림일 것이다. 이에 모대학의 경우처럼 달력에 세계 여러 대학의 전경을 담는등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새롭게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 본교의 경우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전통과 위엄을 자랑하는 학교 건물과 풍경을 담아 발행했다. 그것도 예년과 꼭 같은 사진들로 학교 홍보를 위해 제작되므로 학내 건물이나 풍경을 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년과 다른좀더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 볼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새해 달력이 식상하면 새해의 기분도 제대로 살릴수 없어 좋은 달력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재학생에 있어 학교와의 연대감은 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력이라는 작은 매개체도 재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학교측도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으며 좋지않을까 싶다. 신선함을 던져주는 달력뿐 아니라 예쁜 기획상품까지 제작하는 타대학이 부럽게 느껴지는것은 교시탑子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까닭인지. 학교측의 행정에 못내 궁금할 따름이다.

대학주보 정기구독 안내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신청전화: (02)961-0094
(02)963-5849
◇F A X: (02)963-5849
◇정기구독료: 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기 타: 정기구독 신청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구독료 납부방법

아래 은행구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주택은행	체신부(우체국)
492323-90-1-8400	012336-0004517
제일은행 150-20-231438	한국외환은행
조흥은행 321-04-233401	131-13-06374-7
중소기업은행	한일은행 014-045527-02-001
017-02-0154-084	서울신탁은행 15707-2651505
국민은행 016-01-0559-741	한국상업은행 151-07-293461
농협중앙회 031-01-294693	

(이상 예금주 이 석 우)